

# 바이든, 트럼프에 17%p 앞서...최대 격차

### 부동층 끌어들이며 격차 확대 50% “트럼프 패배시 불복”

### 양 지지층 현장·우편투표 성향

미국 대선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도전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17%포인트 차이로 뒤지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는 최근 확대되는 추세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오피니엄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7%가 바이든 후보를, 40%가 트럼프 대통령을 각각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이 같은 격차는 이달 초 CNN 방송 조사에서 나타난 16%포인트(바이든 57%, 트럼프 41%)보다 더 확대된 것이라 전했다.

지난 8월 21~25일 같은 조사 때보다 격차(트럼프 41%, 바이든 56%)가 더 벌어졌다.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후보는 부동층에서 5%p의 지지를 더 얻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미 18세 이상 성인 2천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 논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TV토론, 트럼프 대통령 자신까지 걸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이 여론 추세를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후보는 헬스케어, 인종 문제, 일

자리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최대치적 가운데 하나로 꼽아온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45%대 43%로 더 높은 지지를 받았다.

74세인 트럼프 대통령이 77세의 바이든 후보의 정신 건강을 지속적으로 공격해왔지만, 응답자들은 48%대 44%의 비율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정신건강이 더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다.

가디언은 특히 주요 경합주인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주 등에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 가운데 일부가 ‘반(反)트럼프’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반 트럼프’로 돌아선 유권자들 가운데 62%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을, 47%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성과 행동

행태를 각각 마음을 바꾼 이유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현장 투표를, 바이든 후보 지지자들은 우편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현장 투표를 하겠다고 밝힌 유권자의 55%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우편투표 의향을 가진 유권자의 75%는 바이든 후보를 찍겠다고 응답했다.

가디언은 이에 따라 오는 11월 3일 미 대선 후 개표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편투표 개표 상황이 진행되면서 결과가 뒤집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응답자의 50%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결과를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 가운데 66%는 선거가 조작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



13일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시민들이 거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당국의 철거명령에 항의하기 위해 미테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복회, 메르켈에 ‘소녀상 철거 취소’ 공문

광복회는 양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베를린 미테구의 슈테판 폰 다셀 구청장 앞으로 '평화의 소녀상' 철거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광복회는 전날 발송한 공문에서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철거요구에 굴복하는 미테구의 처사는 실망스럽고, 그간 독일이 보여준 나치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테구의 ‘소녀상’ 자진철거 명령

은, 반인륜 전사 성범죄 만행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며 “아시아 여성의 인권을 경시하는 극단적인 ‘인종차별주의’에 관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광복회는 “철거 명령을 철회하고 존치시켜 독일이 나치의 반인륜적 범죄를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듯 일본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경종을 울리며, 인류평화를 위한 정의와 인도주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 일본, 코로나 3차 추경 추진...여행장려 연장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편성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소비 촉진이나 고용 창출 등을 유도할 수 있는 경기대책을 중심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및 여당 관계자가 밝혔다.

규모는 향후 경제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경기 부양의 양

립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예비비로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3차 추경 예산으로 “경제를 돌릴 것”이라고 일본 정부 핵심 관계자가 말했다.

3차 추경 예산에는 디지털 사회 구축을 목표로 관련 분야에 투자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구상이 담겼다.

또 의료용품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하고 저출산에 대응해 불임 치료비 지원제도를 확대하며 ‘고투 트래블’(Go To Travel) 등 관광 산업을 지원하는 대책도 반영한다. 아울러 여당 등의 요청을 고려해 내년 1월에 종료 예정인 고투 트래블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샌퍼드의 ‘올랜드 샌퍼드 국제공항’에 마련된 대선 유세장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를 시작으로 중단했던 대선 유세를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톨리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열린 ‘드라이브인 유세’에서 차에 타고 있는 청중을 향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중국 ‘BTS 비난 여론’ 반중감정 커질까 자제 모드

### 환구시보, ‘한중 우호’ 강조

### 중누리꾼들 찬반 갈려 논쟁

방탄소년단(BTS)의 한국전쟁 70주년 언급을 중국 일부 누리꾼들이 맹비난한데 따른 후폭풍으로 한국 내 반중 감정이 커지자 중국이 파장을 경계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BTS가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벤 플리트상’을 수상하며 한국전쟁 70주년을 언급한 것에 대해 중국 누리꾼들의 비난을 보도했던 중국 민족주의 성향의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4일 한국 매체들의 관련 보도를 자세히 전하며 진화작업에 나섰다.

당시 중국 누리꾼들은 BTS의 수상 소감 중 한국전쟁을 ‘양국(한미)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라고 언급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환구시보는 한국 매체들이 중국 누리꾼들의 BTS 발언 비난에 대해 ‘생트집 잡기’, ‘과잉 반응’, ‘과격해 애국주의’라고 비난을 쏟아냈고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한국 매체는 ‘중국 언론이 여론을 선동한다’, ‘중국의 과잉 애국주의에 누가 제2의 BTS가 될 것인가’라고 비판하면서 미중 갈등 속에 항미원조(抗美援朝)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운) 정신을 띄우려는 중국의 의도로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환구시보는 한국과 중국 외교부

에서 이번 BTS 사태와 관련해 한중 양국이 우의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일로 한중 관계가 악화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분위기를 내비쳤다.

지난 주말에 시작된 중국 내 BTS 비난 여론은 잠잠해졌으나 일부 누리꾼들의 반응은 이어지고 있다.

이들 중국 누리꾼은 BTS가 정치적 발언에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조국을 뛰어넘는 아이들은 없다며 이해한다는 입장도 제기됐다.

환구시보의 영자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11일과 12일 기사를 통해 BTS의 한국전쟁 발언이 중국 전역에서 항미원조를 기리기 위해 영화와 다큐멘터리가

제작되는 추모 분위기에서 나왔다는 점을 주목했다.

글로벌타임스는 BTS의 발언이 미국 네티즌을 고려한 것이며 “조국을 뛰어넘는 아이들은 없다”며 입장을 옹호하는 중국 팬들의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BTS가 한국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중국인이라 화가 난다”,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무시할 수 있나”라는 중국 누리꾼들의 격한 반응도 여전히 있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BTS가 얼마나 중국 팬들을 아끼는지 강조하면서 “BTS는 중국과 중국 팬에게 수차례 애정을 표했다”, “BTS를 믿고 싶고 다음에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 말할 때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글로벌타임스는 삼성이 중국 누리꾼들의 BTS 비난에 BTS 관련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내린 것을 주목했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짝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